

世界で活躍する城西生の様子をお伝えする「Focus!」。昨年度の留学報告の第2弾として今回は「日韓比較」を掲載します。韓国にある本校姉妹校に留学した生徒の目線で文化が比較されています。「百聞は一見に如かず」とはまさにこのこと。自分の目で見て、感じて、考えたことがまとめられています。

## 高校3年生(2013年度現在) 後呂 千夏さん【韓国・瑞草高校(本校姉妹校)】

### 「日韓文化比較」

#### ○韓国語で学ぶことの難しさ／現地生徒の姿勢

韓国語と日本語は似ていて、文法が一緒です。ですが、日本語にはない発音が韓国語の中には沢山あります。そのため、書く時はともかく、話す時は常に発音に気をつけるようにしています。

한국어와 일본어는 비슷하고 문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어에는 없는 발음이 한국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차치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발음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韓国の高校生たちは”受験意識”が高く、とても沢山勉強しています。そのため学校も夜遅く(多分 10 時頃)まで自習室が使えたり、ほとんどの生徒が塾などに通っていたりしています。放課後の部活に関しては、私が留学した先の学校では不定期で金曜日に行われていました。そこでオーケストラのサークルに入った私は初めてギターに挑戦し、3ヶ月後に行われた文化祭の時、友達とステージで演奏させてもらいました。語学学習だけでなく、このような貴重な体験もすることができ、いい思い出となりました。

한국 고등학생들은 ”수험의식”이 높고 아주 공부합니다. 그 때문에 학교도 밤 늦게 (아마 10시 정도)까지 자습실을 사용할 수 있거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 등에 다니거나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의 동아리에 관해서는 제가 유학한 학교에서는 부정기로 금요일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들어간 저는 처음으로 기타에 도전해 3 개월 후의 문화제 때에 친구들과 스테이지에서 연주 했습니다. 어학 학습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귀한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 ○韓国の衣服や衣服にまつわる考え方・特徴

韓国も日本のように春夏秋冬があるので、基本的に日本人と着る物や時期は同じです。ただ、気温は常にマイナスでとても寒いので、冬は日本人より暖かい格好をしています。また、9月頃に秋夕という祝日があり、その時には民族衣装である韓服を着ます。



한국도 일본처럼 춘하추동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일본사람과 입는 것이나 시기는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의 기온은 항상 영하이어서 매우 춥기 때문에 겨울은 일본사람보다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9 월에는 추석이라고 하는 축일이 있고 그 때는 민족 의상인 한복을 입습니다.

## ○韓国の食や食にまつわる考え方・特徴



韓国と言えば連想されるのがキムチですが、他にもビビンバやプルコギなど、美味しくて韓国料理の代表として挙げられる食べ物は沢山あります。また、日本と韓国とでは食事のマナーが少し違います(例えば、お箸など、日本人は一番手前に横向きに置きますが、韓国人は縦向きに置きます)。私が韓国に行って一番驚いた食べ物は、パッピンスというかき氷です。

한국하면 연상되는 것이 김치인데 그 외에도 비빔밥이나 불고기등 맛있고 한국요리의 대표로 들 수 있는 음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는 식사의 매너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들면 젓가락등 일본사람은 앞에 옆쪽으로 둡니다만 한국사람은 세로 방향에 둡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서 제일 놀란 음식은 팔빙수라고 하는 얼음디저트입니다. 주로 카페에서 팔아 있는 팔빙수는 짙은 얼음에 아이스크림이나 과일이나 팔이나... 이러한 것이 실려 있는 얼음디저트인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맛있어서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